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2월 18일(수)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PGA 투어·타이거 우즈 재단과 재계약 조인식 美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 2030년까지 연장

- 1926년 창설 이후 100년 역사와 전통... PGA 투어·타이거 우즈 재단과 동행 지속
- 정의선 회장 “골프를 넘어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
- 2월 19일~22일 美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최
- 세계 정상급 선수 72명 출전... 우승자에게 상금 350만 달러 및 GV80 쿠페 블랙 수여
- 캘리포니아 산불 구호 모금 캠페인 ‘캘리포니아 라이즈(California Rises)’ 2년 연속 전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The Genesis Invitational)’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이어간다.

제네시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Riviera Country Club) 컨트리 클럽에서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재단(TGR Foundation)과 함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재계약 조인식을 열고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브라이언 롤랩(Brian Rolapp) PGA 투어 최고경영자(CEO)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운영 주체인 타이거 우즈 재단의 타이거 우즈(Tiger



PRESS RELEASE

Woods) 선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랜디 파커 북미권역본부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1926 년 창설된 ‘LA 오픈’이 전신으로, 올해 100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의 프로 데뷔, 타이거 우즈의 첫 PGA 출전 등 골프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장식해온 유서 깊은 PGA 투어 대회다.

제네시스는 2017 년 ‘제네시스 오픈’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이후 2020 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격상되는 과정을 함께 했으며, 이번 재계약을 통해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가게 됐다.

브라이언 롤랩 PGA 투어 CEO 는 “PGA 투어는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호스트를 맡고 있는 타이거 우즈 선수는 “제네시스와 함께한 기간은 대회를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물론 타이거 우즈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선수, 타이거 우즈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2030 년까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후원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00 년이란 전통을 이어온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골프가 지켜온 품격과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대회이자 제네시스



PRESS RELEASE

브랜드가 추구하는 진정성, 존중, 탁월함의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무대”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계기로 파트너들과 함께 대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가고, 골프를 넘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5 월 PGA 투어와 2030 년까지 첫 공식 자동차(Official Vehicle Sponsor) 후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7 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 년까지 연장하는 등 글로벌 골프 스폰서십을 통한 제네시스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제고하고 있다.

■ 총상금 2000 만 달러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19 일 개막

타이틀 스폰서십 재계약 이후 열리는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창설 100 주년을 기념해 올해로 개장 100 주년을 맞은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The Riviera Country Club)에서 현지시간 19 일(목) 개막해 22 일(일)까지 열린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2024년 이후 3회 연속 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Signature Event)’로 펼쳐진다. 시그니처 대회는 올해 열리는 45개 PGA 투어 대회 가운데 제한된 선수들만 참가하는 최고 권위의 8개 대회로, 총 상금 규모 및 페덱스컵 포인트가 일반 대회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루드비그 오베리(Ludwig Åberg)를 비롯해 세계 랭킹 1 위 스코티 셰플러(Scottie Scheffler), 2 위 로리 맥길로이(Rory McIlroy), 3 위 저스틴 로즈(Justin Rose) 등 세계 랭킹 상위 20 위 선수 중



PRESS RELEASE

18 명을 포함해 총 72 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김주형 등 2 명이 도전한다.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총 상금은 2000 만 달러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350 만 달러와 함께 GV80 쿠페 블랙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에서 ▲GV60 마그마 모델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GV70 전동화 모델 ▲GV80 쿠페 등 총 18 대의 차량을 제네시스 라운지, 제네시스 스카이박스 등 주요 거점에 전시해 갤러리 및 TV 중계 시청자들에게 제네시스의 우수한 상품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재단과 함께 진행했던 ‘캘리포니아 라이즈(California Rises)’ 캠페인을 올해도 전개한다.

특히 토너먼트 기간 10 번, 14 번, 16 번, 17 번, 18 번 홀에서 버디 및 이글을 기록할 경우 1,000 달러, 홀인원 때는 25,000 달러를 적립하는 ‘버디 포 굿(Birdies for Good)’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모금된 구호기금은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로스 앤젤레스 소방국 재단(Los Angeles Fire Department Foundation), 제네시스 인스퍼레이션 파운데이션(Genesis Inspiration Foundation) 등의 자선 단체에 전달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버디 포 굿(Birdies for Good)’ 이벤트에서는 약 28 만 달러의 구호 기금이 모금되기도 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이자 PGA 투어 공식 자동차



PRESS RELEASE

후원사로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 케어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차량 전시뿐 아니라 제네시스 퍼블릭 라운지 내 다양한 액티베이션을 통해 방문객들에게도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

<사진 설명> 美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 2030년까지 연장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The Genesis Invitational)’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이어간다.

사진 1) (왼쪽부터) 타이거 우즈(Tiger Woods),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PGA 투어 브라이언 롤랩 CEO

사진 2)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타이거 우즈, PGA 투어 브라이언 롤랩 CEO,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 3) (왼쪽부터) 테드 멘지스테 제네시스 북미법인 COO,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타이거 우즈, PGA 투어 브라이언 롤랩 CEO,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현대차 랜디 파커 북미권역본부장

사진 4~6)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장 전경